

2021 ARPS 교재 연례개정

1권. 은퇴설계의 New Paradigm

쪽수	출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7	그림	그림 1-1	[첨부 1] 참조	그림 수정
17 ~ 18	하 1 ~ 상 3	하지만 현실은 ~ 4억 2,026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자산은 평균 4억 4,543만원에 불과하다. 가구 주연령별로 자산보유액을 살펴보더라도,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50대 가구도 평균 5억 남짓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60세 이상 가구는 이보다도 적은 4억 2천만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내용 수정
23	상 19~20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가량 감면 받을 수 있다.	내용 수정
25	하 6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2.7세(남자 79.7세, 여자 85.7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3세(남자 80.3세, 여자 86.3세)이다.	내용 수정
28	상 3 ~ 상 5	현재 진행형인 사람도 ~수명이 긴가 보다	삭제	내용 삭제
29	하 6 ~ 하 5	한국인 남성의 평균수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18년 79.7세로 21세 늘었다. 여성도 같은 기간 65.8세에서 85.7세로 19.9세 늘어났다.	한국인 남성의 평균수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19년 80.3세로 21.6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수명도 65.8세에서 86.3세로 20.5세 늘어났다.	내용 수정
29	그림	그림 1-5	[첨부 2] 참조	그림 수정
30	상 3 ~ 상 6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1970년 12.7년에서 2018년 22.8년으로 10년 이상 늘어났다. ~ 기대여명을 합치면 60세 남자는 평균적으로 82.8세, 여자는 87.45까지 산다는 계산이 나온다.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970년 12.7년에서 2019년 23.3년으로 10년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60세 여성의 기대여명도 18.4년에서 28.1년으로 10년 가까이 늘어났다. 기대여명을 고려하면 현재 60세인 남성은 83.3세, 여성은 88.1세까지 산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용 수정

30	그림	그림 1-6	[첨부 3] 참조	그림 수정
30	하 6 ~ 하 3	2018년에 출생한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는 79.7세이고, 여자는 85.7세이다. 하지만 이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유병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15.7년, 여자는 20.9년이나 된다. 따라서 유병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64.0년, 여자는 64.9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출생한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성은 79.7세이고, 여성은 85.7세이다. 하지만 이들이 기대여명이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치레를 하며 보내는 기간은 남성은 11.4년, 여성은 13.3년이나 된다. 병치레기간을 빼고 나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남성은 68.3년, 여성은 72.4년에 불과한 셈이다.	내용 수정
32 ~ 33	하 2 ~ 상 2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이 79.7년인데 이중 유병기간이 15.7년이나 된다. 인생의 20%를 병치레를 하며 보내는 셈이다. 여성의 상황은 이보다 더 좋지 않다. 여성의 평균수명은 85.7세인데, 유병기간은 20.9년으로 삶의 4분의 1을 병치레를 하며 보내는 셈이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은 79.7세인데, 이중 유병기간이 11.4년이나 된다. 인생의 14.3%를 병치레를 하며 보내는 셈이다. 여성의 상황은 이보다 못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85.7세 인데, 이중 13.3년(15.5%)을 병치레를 하며 보낸다.	내용 수정
33	하 5 ~ 하 3	평균수명만 보더라도 여자(85.7세)가 남자(79.7세)보다 6년이나 더 살고, 결혼할 때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3살 정도 어리다. 간단히 계산해 봐도 아내가 남편보다 10년은 더 사는 셈이다.	평균수명을 비교해 보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6년을 더 산다. 그리고 결혼할 때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3살 정도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내가 남편보다 9년은 더 산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용 수정
38	하 8 ~ 하 7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이다. 이는 1970년에 출생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이란 만 15세부터 49세 사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지표화 한 것이다.	내용 수정
41	하 6 ~ 하 2	2019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억 9,345억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60대 가구의 자산규모도 평균 4억 2,026억 원이나 됐다. 이에 비하면 20~30대 가계의 자산규모는 베이비부머가 속한 50~60대에 훨씬 못 미친다.	2020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5억 903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규모가 컸다. 50대 다음은 60대가 차지했는데, 이들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4억 2,701만원이다. 이에 비하면 20~30대 가구의 자산은 50~60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수정

42	그림	그림 1-9	[첨부 4] 참조 [그림 1-9]를 [표 1-3]으로 변경 이후 표 및 그림 번호 수정	그림 수정
58	하 4 ~ 하 1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국내 연금자산 규모는 ~ 국민연금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셈이 다.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을 합친 국내 연금 자산 규모는 2019년말 1,309조원이다. 2009년말 국내 연금 자산 규모가 428 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3 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자산은 278조원에서 736조원 으로 2.6배 성장한 반면 사적연금자산 은 150조원에서 572조원으로 3.8배 성 장했다. 사적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내용 수정
59	표	표 1-4	[첨부 5] 참조	표 수정
59	상 1 ~ 상 3	특히 퇴직연금 자산의 증가 폭이 컸다. 2009년 14조원에 불과했던 퇴직연금자산은 10년만에 190조 원으로 14배 가까이 성장했다. 최근 들어 개인연금시장에서 세제비 적격연금자산의 증가폭이 세제비 적격연금자산을 넘어선 것도 눈에 겨 볼만 하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의 증가 폭이 컸다. 2009년 14조원에 불과했던 퇴직연금자 산은 10년만에 221조원으로 16배 성장 했다. 최근 들어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 연금이 세제비적격연금보다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것도 눈에겨볼만하다.	내용 수정
59	표	표 1-5	[첨부 6] 참조	표 수정
64	그림	그림 1-17	[첨부 7] 참조	그림 수정
64	하 3 ~ 하 2	하지만 2012 현재 한국인의 평 균수명은 81.4세로 늘어났다. 30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명이 15년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 명은 82.7세로 늘어났다. 36년 동안 평 균수명이 16년 늘어난 셈이다.	내용 수정
65	그림	그림 1-18	[첨부 8] 참조	그림 수정
65	상 1 ~ 상 4	그림에서 정기에금 금리는 ~ 93.7%까지 치솟았다.	그림에서 정기에금 금리는 1998년 13.3%에서 2018년 1.9%로 곤두박질 친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퇴 직공무원 중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한 비율은 46.7%에서 93.3%로 2배 증가 했다.	내용 수정
67	상 5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니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문구 삽입

90	상 4 ~ 상 8	맞벌이가구의 뚜렷한 증가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 이쯤 되면 맞벌이가 한국 가정의 주된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가구의 뚜렷한 증가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유배우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6.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40~49세 맞벌이 비중이 54.2%로 가장 높았고, 50~65세 가구에서 맞벌이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절반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맞벌이가 한국 가구의 주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90	그림	그림 2-5	[첨부 9] 참조	그림 수정
93	그림	그림 2-6	[첨부 10] 참조	그림 수정
95	상 4 ~ 상 5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으로 ~ 월 49만원이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39만 439쌍(78만 878명)의 부부가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는 노령연금으로 매달 365만 8천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부부는 두 사람이 받는 연금을 합쳐도 그리 많지 않다. 부부 받는 연금을 합쳐서 월 100만원이 넘는 부부는 9만 4,849쌍으로 24.3%로 네 중 한 쌍에 불과했다.	내용 수정
95	상 14 ~ 상 16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완전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매달 79만원을 수령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부부의 경우 150~16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완전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75만 3천명으로 평균연금월액은 93만원이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이 만큼 연금을 받으면, 매달 180만원의 생활비를 노령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용 수정
95	하 8 ~ 하 4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 10년이 안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2019년 기준으로 경력단절 여성 중 30대는 80만 6천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 30대는 취업 후 10년이 안된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돼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내용 수정

96	상 13 ~ 상 19	이 같은 장점이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가 ~ 2017년에는 13만 8천명을 넘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장점이 알려지면서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에서 있었던 A씨(49세)의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 8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추후납부를 통해 그동안 내지 않았던 241개월치 보험료 1억 150만원을 한번에 납부했다. A씨가 추후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65세 이후에 매달 35만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 텐데, 추후납부를 함으로써 예상연금수령액이 118만원으로 늘어났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시대에 1억원 남짓한 보험료를 내고 매달 80만원 넘는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납부제도가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추후납부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다.	내용 수정
97	상 8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삭제	내용 삭제
97	상 10 ~ 상 12	이 같은 장점이 알려지면서 ~ 2016년에는 13만건을 넘어서었다.	삭제	내용 삭제
97	하 2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내용 수정
99	하 2	1997년 9.8%에서 2017년 31.2%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이혼한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셈이다.	2009년 28.3%에서 2019년 38.4%로 증가했다. 이혼 부부 열 쌍 중 네 쌍이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셈이다.	내용 수정
100	그림	그림 2-8	[첨부 11] 참조	그림 수정
100	하 5	분할연금은 이혼한 다음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분할연금은 이혼한 다음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내용 수정

100	하 2 ~ 하 1	2017년 연말에는 25,302명까지 늘어났다.	2019년 연말에는 34,684명까지 늘어났다.	내용 수정
101	그림	그림 2-9	[첨부12] 참조	그림 수정
101	상 8 ~ 상 11	올해부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도 적용된다. ~ 청구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도 도입됐다.	내용 수정
101 ~ 102	하 7 ~ 상 7	그렇다면 이혼한 부부는 누구나 전배우자에게 노령연금(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 서류를 지참한 다음 해당 연금 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혼한 사람은 누구나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첫째,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이때 별거와 가출로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둘째, 이혼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춰야 한다. 셋째, 본인이 60세가 되어야 한다. 이들 조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자라면, 본인이 65세가 넘어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 기한이 3년이라는 점만 빼면 나머지 청구 조건은 국민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군인연금에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갖추면 본인 나이는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 수정
102	상 8 ~ 상 17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전체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절반씩 나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전체 가입기간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액을 절반씩 나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30년이고, 그와 혼인생활을 한 기간은 10년이며, 이혼한 배우자는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받는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혼인 기간은 3분의 1을 차지한다. 따라서 노령연금 중 3분의 1인 50만원이 분할 대상이고,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이중 절반인 25만원을 수령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나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내용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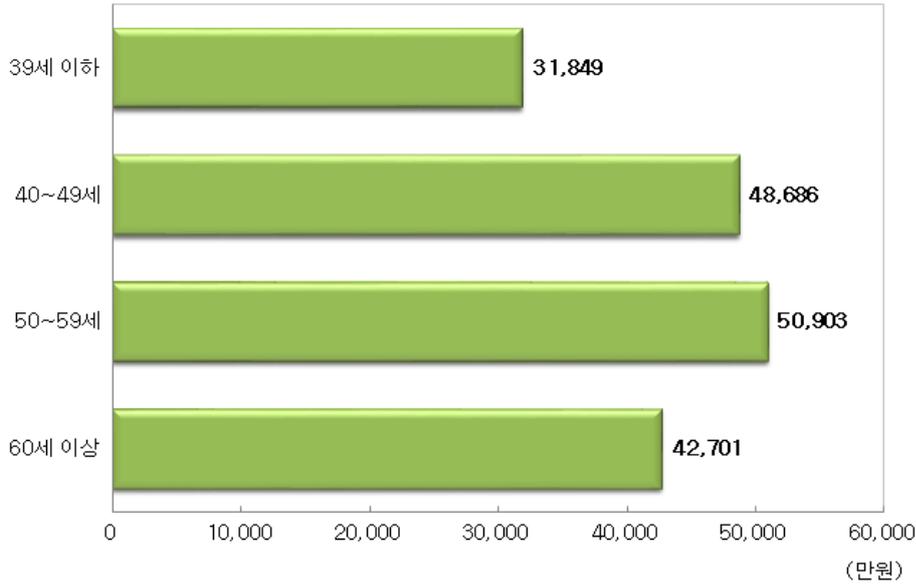
			그러면 혼인 기간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105	상 3 ~ 상 12	2017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는 438만명이다. 이중 여성 수령자는 183만명으로 41.7%에 불과하다. ~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에서 10년 사이로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겨우 월평균 21만원의 연금을 받을 뿐이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434만명인데, 이중 여성은 152만명으로 35.1%에 불과하다. 게다가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는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은 6만 5천명으로 채 5%가 안된다. 더군다나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무려 49만명이나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들이 적은 것이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 2020년 11월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월평균 93만원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9년 이하인 사람은 노령연금으로 월평균 40만원을 받고 있고, 가입기간이 10년 안되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은 월평균 22만원이다.	내용 수정
106	그림	그림 2-12	[첨부 13] 참조	그림 수정
128	상 11	이때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이때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에	내용 수정
130	하 9 ~ 하 7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30%나 절감할 수 있다. ~ 납부하면 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40%나 절감할 수 있다. 연금은 퇴직 이후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연금수급 가능한 연령부터 10년간은 연금수령액에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내용 수정
132	상 1 ~ 상 4	지난해 6월까지 IRP 가입자가 ~ 주식형 상품에는 투자할 수는 없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 이하의 범위에서 주식형에 투자할 수 있다.	내용 수정
132	상 5 ~ 상 7	마지막은 혼합형이다. ~ 자산배분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은 혼합형이다. 혼합형은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투자하되 주식의 비중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혼합형은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다시 채권혼합형과 주식혼합형으로 나뉜다. 퇴직연금 관련	내용 수정

			규정에서는 주식비중이 40~60%이면 주식혼합형, 40% 미만이면 채권혼합형으로 분류한다. IRP 가입자는 주식형과 주식혼합형과 같은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다.	
139	하 7 ~ 하 4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하한액은 30만원이고 상한액은 468만원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고, 468만원보다 많으면 468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하한액은 32만원이고 상한액은 503만원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내용 수정
143	하 5 ~ 하 1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 고령자가 있는 ~ 보험료를 30%를 경감해 준다.	먼저 과표재산에 따른 경감률을 살펴보자. 과표재산이 6,000만원 이하면 30%,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면 20%, 9,000만원 초과 1억 3,500만원 이하면 10%를 경감해준다. 70세 이상 노인가입자만 있는 세대는 연간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면서 과표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30% 경감해 준다.	내용 수정
144	표	표 3-4	[첨부 14] 참조	표 수정
151	하 7 ~ 하 5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열명 중 세 명(29.5%)이 ~ 59%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재 65세 이상 고용률은 32.9%다. 65세 이상 고령자 셋 중 한 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의 2018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만 55세부터 79세 이하 고령인구의 64.1%가 장래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수정
151 ~ 152	하 2 ~ 상 2	앞선 조사에서 ~36.5%나 됐다.	앞선 조사에서 고령자(55세~79세)에게 일하려고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에 보탬'이라고 답한 사람이 59.0%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답한 사람도 36.5%나 됐다.	내용 수정
152	그림	그림 3-2	[첨부 15] 참조	그림 수정
235 ~ 236	상 5 ~ 상 4	고령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변화는 ~ 전부 합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다.	한국거래소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 주식보유자 수는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54만 8,000명으로 전체 주주의 14.7%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기준 한국예탁원에 따르면 상장사	내용 수정

			개인 실질주주 중 60대 이상은 101만 9,325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의 20% 비중이다. 주주수는 전년대비 8.4% 증가했고 2015년 대비해서는 183.5% 늘어나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고령 주주 수의 증가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다.	
236	그림	그림 4-11	[첨부 16] 참조	그림 수정
236	그림	그림 4-12	[첨부 17] 참조	그림 수정
249	표	표 4-9	[첨부 18] 참조	표 수정
250	상 2 ~ 상 7	국민연금연구원이 중고령가구의 생활비를 조사한 ~ 월평균 생활비는 100만원 남짓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국민연금연구원이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부기준으로 50대는 노후생활비로 월 276만원, 60대는 월 247만원, 70대는 월 194만원, 80세 이상은 월 17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인기준으로는 50대는 월 160만원, 60대는 월 148만원, 70대는 118만원, 80세 이상은 100만원을 예상했다.	내용 수정
250	그림	그림 4-21	[첨부 19] 참조	그림 수정
254	그림	그림 4-22	[첨부 20] 참조	그림 수정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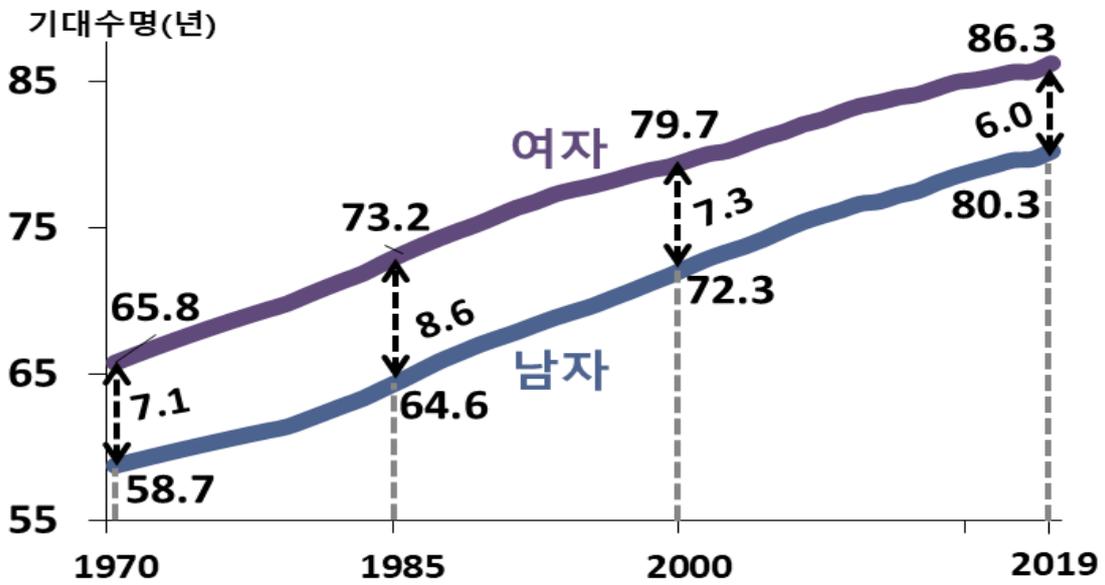
[그림1-1] 연령대별 가계자산 보유 현황



※출처 :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첨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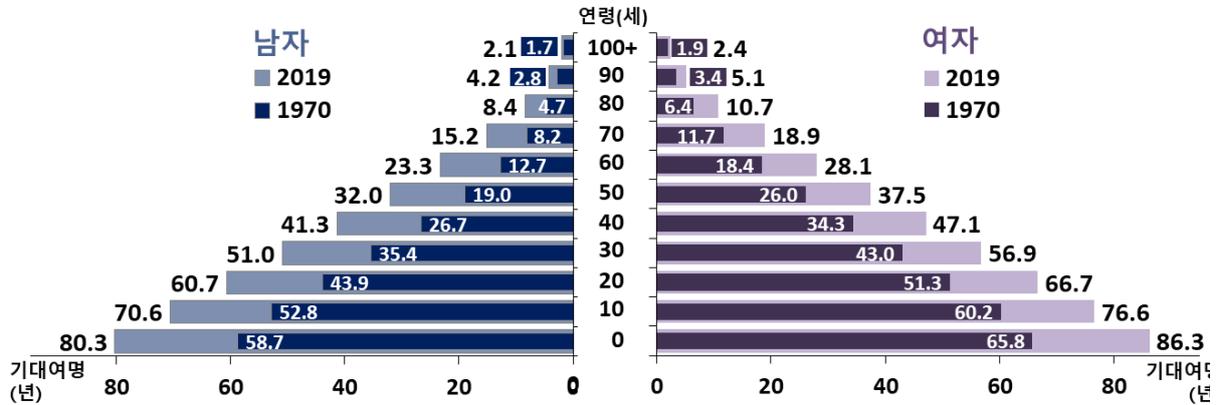
[그림 1-5]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차이 추이(1970-2019년)



※출처 : 통계청(2019년 생명표)

(첨부 3)

[그림 1-6] 성·연령별 기대여명 (1970년, 2019년)



※출처 : 통계청(2019년 생명표)

(첨부 4)

[표 1-3] 자산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자 산	금 용 자 산		실 물 자 산					
		저축액	전월세보증금	구성비	부동산	거주주택	기타		
전체	44,543	10,504	7,632	2,873	34,039	76.4	31,962	18,945	2,076
39세이하	31,849	10,997	5,348	5,648	20,853	65.5	18,812	12,782	2,041
40~49세	48,686	12,635	8,460	4,175	36,051	74.0	33,421	21,210	2,630
50~59세	50,903	12,694	9,800	2,893	38,209	75.1	35,681	19,822	2,527
60세이상	42,701	7,840	6,630	1,210	34,861	81.6	33,350	19,261	1,511

※출처 :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첨부 5)

[표 1-5] 공·사적 연금시장 현황

(단위 : 조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민연금	278	324	349	392	427	470	512	558	621	639	737
사적연금	150	187	227	282	329	377	419	458	499	528	572
총 계	428	511	576	674	756	847	931	1,016	1,120	1,167	1,309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 6)

[표 1-6] 퇴직연금, 세제적격연금, 세제비적격연금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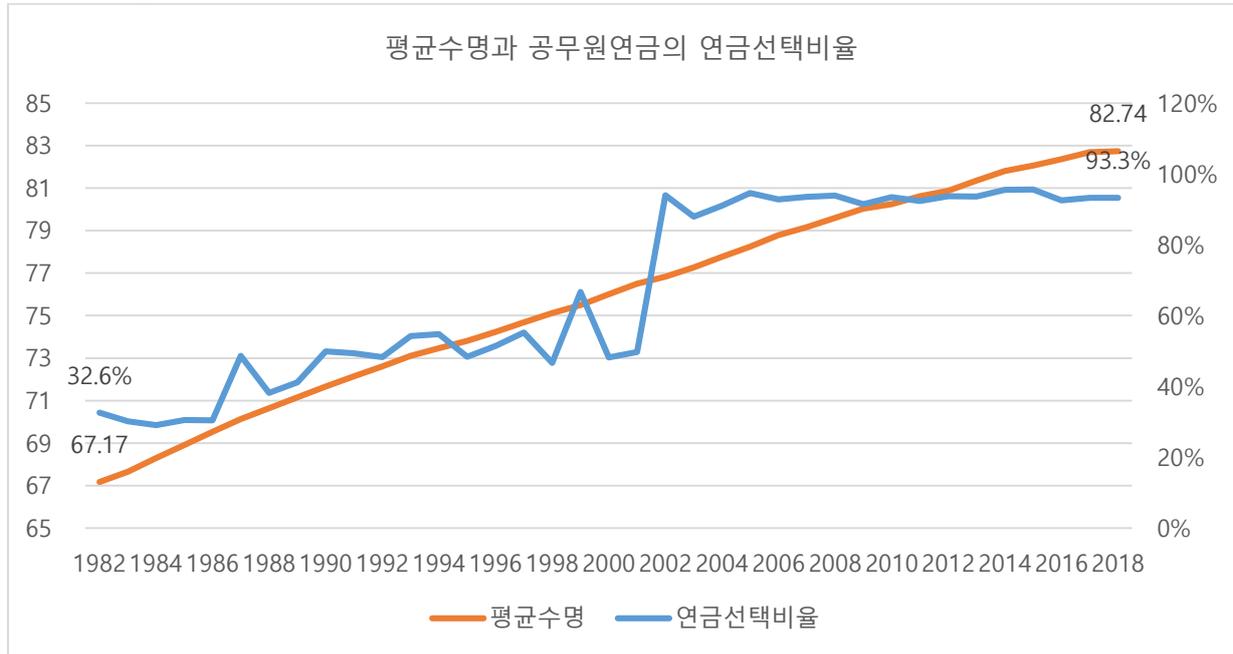
(단위 : 조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퇴직연금	14	29	50	67	84	107	126	147	168	190	221
세제적격	52	60	68	78	90	101	109	119	129	135	143
세제비적격	84	98	109	137	155	169	184	192	201	202	208
총 계	150	187	227	282	329	377	419	458	498	527	572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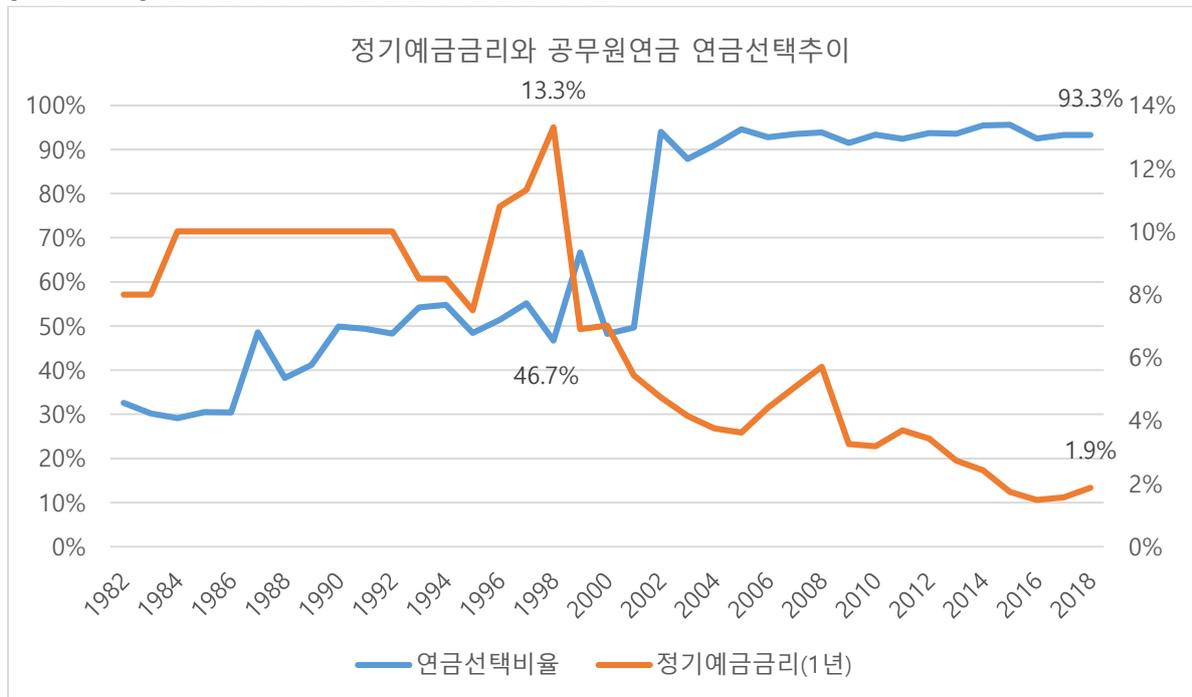
[그림 1-16] 평균수명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선택비율



※ 출처 :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 (통계청, 공무원연금공단)

(첨부 8)

[그림 1-17] 금리변화와 공무원연금의 연금선택비율



※ 출처 :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은행)

(첨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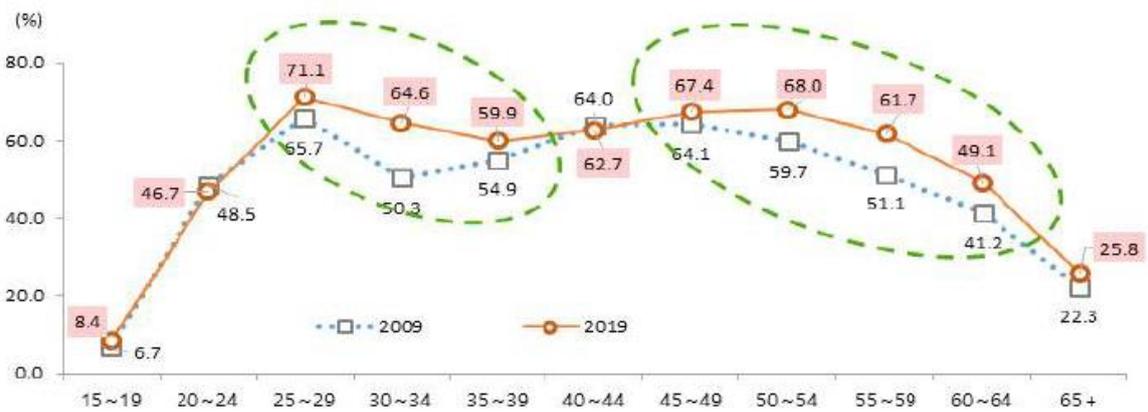
[그림 2-5] 맞벌이 가구 증가 현황



※출처 : 통계청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첨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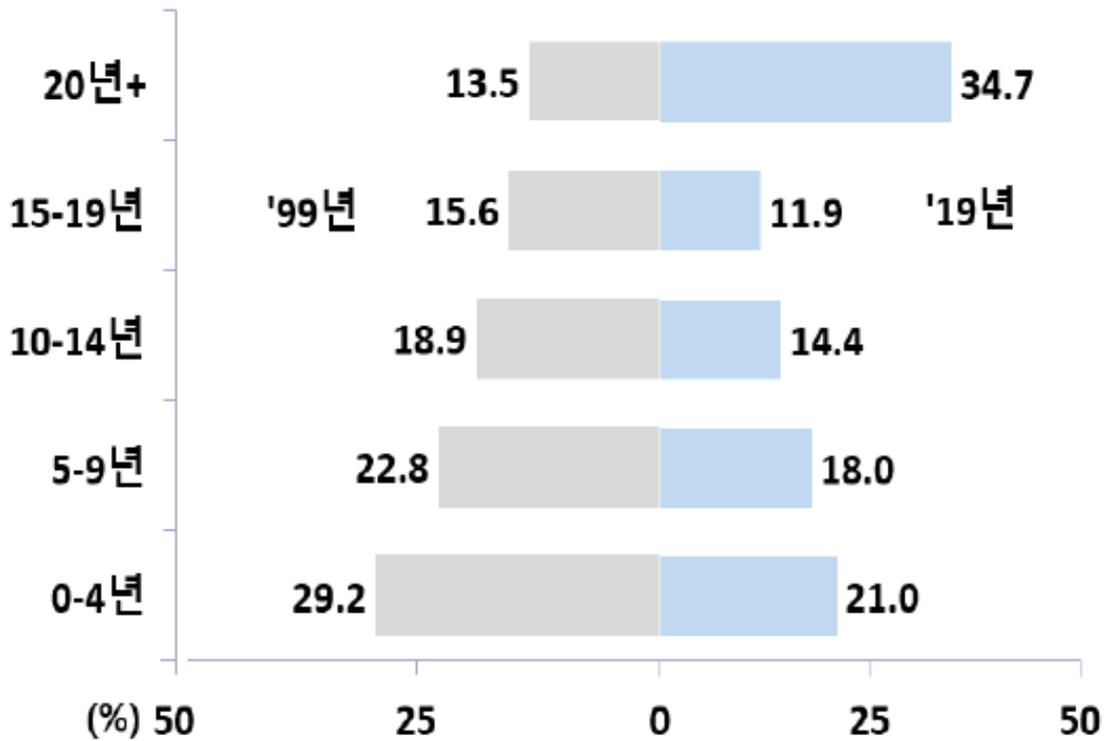
[그림 2-6]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출처 :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첨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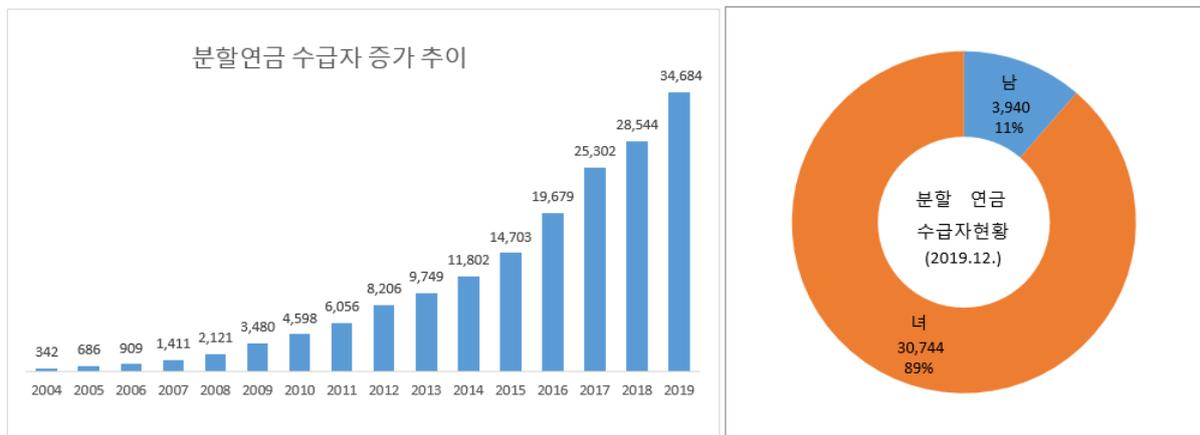
[그림 2-8]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 (1999년, 2019년)



※ 출처 : 통계청 (2019년 혼인이혼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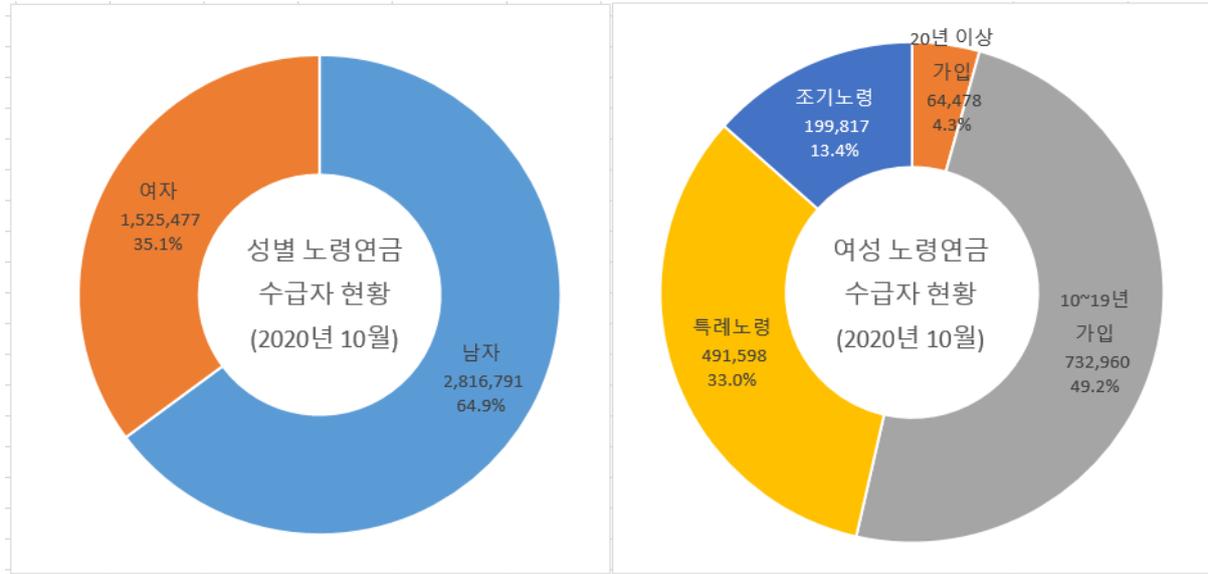
(첨부 12)

[그림 2-9]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령자 현황



(첨부 13)

[그림 2-12]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첨부 14)

[표 3-4]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는 고령 지역가입자

① 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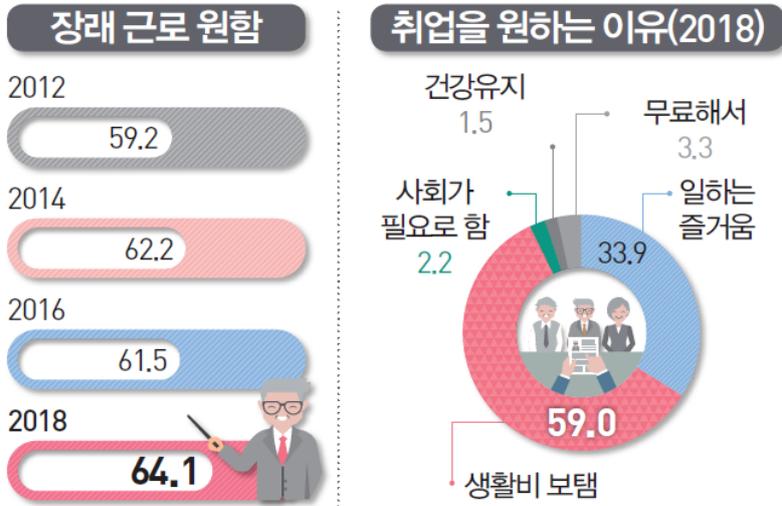
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감률	30%	20%	10%
소득금액(연간)	360만원이하		
과표재산	6,000만원이하	9,000만원이하	1억3,500만원이하

②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경감률	30%
소득금액(연간)	360만원이하
과표재산	1억3,500만원이하

(첨부 15)

[그림 3-2] 고령자(만55~79세)의 취업 의사 및 이유 (단위%)



※ 출처 : 통계청(2018년 고령자통계)

(첨부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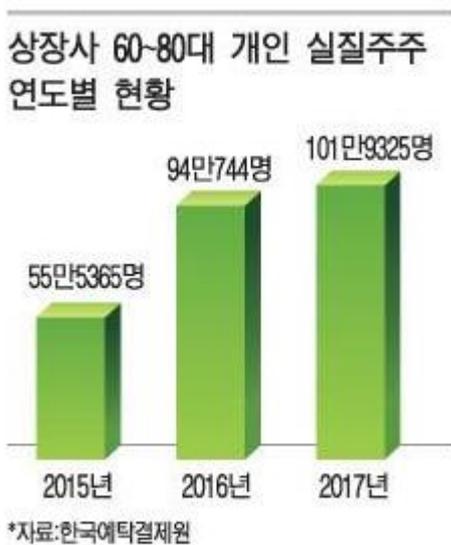
[표 4-6] 상장사 60세 이상 고령 실질주주 현황

구분	주주수	비중(%)	보유주식수	비중(%)
60대	70만180명	14.0	67억2555만주	18.2
70대	25만5558명	5.1	25억7253만주	6.9
80세 이상	6만3587명	1.3	6억1330만주	1.6
합계	101만9325명	20.4	99억1138만주	26.7

*기준:2017년 12월 결산 기업 /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첨부 17)

[그림 4-11] 60세 이상 고령자 개인 실질주주 연도별 현황



(첨부 18)

[표 4-9]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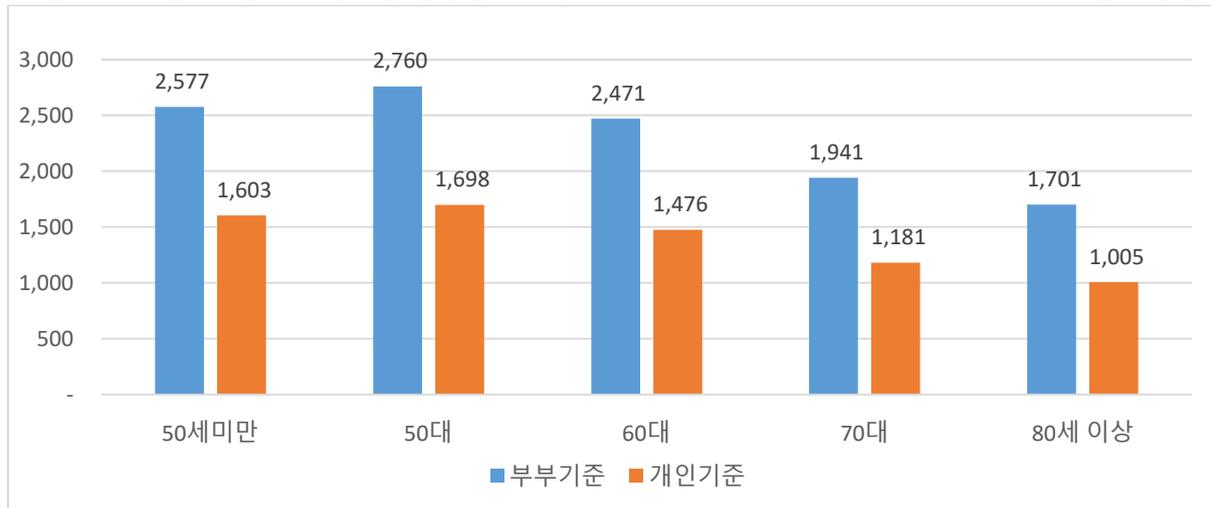
구분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	
	부부	개인	부부	개인
전체	194.7	116.6	267.7	164.4
서울	224.4	137.2	319.0	194.7
광역시	193.0	108.3	265.6	151.5
도	185.9	113.7	252.3	160.6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2020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첨부 19)

[그림 4-21] 연령대별로 예상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

(단위:천원)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2020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첨부 20)

[그림 4-22] 은퇴 후 노후 생활비 만들기 5단계 전략

